

인터뷰

“이제는 새로운 총장과 함께 미래를 가꿔나가야 할 때”

박영국 총장 직무대행 인터뷰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hu.ac.kr

지난해 11월 24일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박영국 대외협력부총장을 총장 직무대행(대행)으로 임명했다. 당시 박 대행은 “새로운 총장이 선출되기까지 대학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그 과정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약 1년이 지났고 현재 새로운 총장은 선임되기 직전 단계까지 왔다. 그리고 총장 직무대행의 임기가 마무리 되어가는 지금, 박 대행은 “이제 새로운 총장과 함께 역동적으로 우리학교의 미래를 가꿔야 한다”며 그 동안의 소회보다는 앞으로 우리학교가 나아가야 하는 미래를 이야기 했다.

박 대행은 ‘총장 직무대행’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학교 학생의 교육 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놓지 않았다. 박 대행은 앞으로 우리학교의 교육 여건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연구가 이뤄져야 하고 평균에 매몰된 교육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행은 “대학 경영의 최우선 가치는 연구 역량이다”며 “연구도 없이 가르친 학생을 어떻게 사회로 보낼 것인가”라고 말했다. 박 대행은 연구 역량을 강화해 학생의 사회 진출을 원활하게 만들고 사회가 탐내는 인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점이 바로 우리학교가 지향하는 ‘문화세계의 창조’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우리학교에서 연구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학과로 정보디스플레이학과를 꼽으며 “좋은 연구를 통한 교육의 결과는 기업과 사회가 졸업생을 부르는 것”이라며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한 학생의 학습권과 사회 진출 향상이 대학 교육에 대한 나의 믿음

졸업생이 ‘LG’라는 대기업에 많이 진출하는 것이 바로 연구 역량과 직결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사회 진출을 향상시켜줘야 한다는 것이 대학 교육에 대한 나의 믿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박 대행은 평균 중심의 교육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고 말한다. “학생의 강점을 살려주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교육의 방향이다”며 “성적이 잘 나온 과목과 잘 나오지 못한 과목을 굳이 평균으로 산출해 주력할 수 있는 분야의 진출을 막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빠르게 나는 독수리, 웅맹하게 땅을 누비는 사자, 유연하게 수영하는 상어처럼 각자 가지고 있는 강점을 보완해줘야지 지금과 같은 교육 방식이 지속된다면 평균적으로 모든 분야를 보통 수준으로 할 줄 아는 ‘청둥오리’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교육 여건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 역량 강화와 앞으로 우리학교가 나아가야 할 교육의 방향 이외에도 박 대행은 총장 선출의 마무리와 재정, 위상 향상을 강조했다. 박 대행은 “가장 중요했던 민주적 총장 선출을 제외한다면 우리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행은 당초 계획에 부합하는 재정 건전성 확보 실패에 아쉬움을 표했다. “재정 확보를 하지 못한 점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재정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위상을 높이려는 노력 또한 재정과 결부되어 있었다. 박 대행은 “위상과 재정은 뗄 수 없는 부분”이라며 “위상이 올라간다면 국가사업 수주가 수월해지고 이는 재정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위상을 올리는 방법의 핵심이 바로 연구 역량 강화라고 말했다.

박 대행은 임기 동안 가장 중요한 학내 사안이었던 총장 선출에는 자량

스러운 점과 아쉬운 점이 공존했다고 언급했다.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 간 비방이 없었던 것과 존중을 잃지 않았던 점이 굉장히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후보자가 공정하게 자신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해왔다는 것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구성원의 합의가 늦게 이뤄짐에 따라 촉박하게 진행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나온 불안감과 이 때문에 제작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성 통신문이 지나치게 많았다”며 아쉬운 점을 짚었다.

박 대행은 임기 동안 대다수 교수가 보여줬던 합리적 의견과 학생이 학내 여러 사안에 보여준 성숙함 및 책임감에도 감사를 표했다. “직무대행 임기 동안 대다수 교수님의 굉장히 합리적인 방식으로 표현된 여러 의견이 현재 총장 선출까지 도달하는데 큰 동력이 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성공적인 총장 후보 추천 과정 속에서 나타난 학생의 합리적 제안과 양보 또한 경희의 역사에 기록될 만큼의 가치 있는 일이었다”며 “학생의 이런 모습이 경희대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현재 모습에 자긍심을 느끼게 해 줬다”고 강조했다.

박 대행은 구성원에게 “우리학교는 올해 개교 70년 이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잘 헤쳐 왔다”며 “그 길을 성공적으로 헤쳐 왔고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저력으로 학교 발전, 위상과 재정을 탄탄하게 하는 일련의 발전 과정을 통해 대학 본연의 임무인 학술과 교육에 꽃이 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에 더해 “학생의 학습 환경이 극대화되고 국내 어떤 대학보다 좋은 학습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이러한 동력을 대학 발전에 이어갔으면 한다”고 마무리했다.




2019학년도 2학기 강의평가 실시 안내

2019학년도 2학기 강의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모든 재학생은 강의평가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평가결과와 강의방법 및 강의내용 개선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1. 기간 : 2019. 12. 2.(월) ~ 12. 23.(월)
- 2. 대상 : 서울·국제 캠퍼스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생)
- 3. 대상강좌 : 학부 및 대학원 전체 개설 강좌
- 4. 성적 열람 및 공시 기간 : 2020. 1. 2.(목) ~ 1. 6.(월)
- 5. 강의평가 실시 여부에 따른 성적조치 기간
 - 강의평가 실시 학생 : 2019. 12. 16.(월) ~ 12. 27.(금), (단, 12. 24. ~12. 26. 제외)
※ 성적입력이 완료된 강좌에 한함
 - 강의평가 미실시 학생 : 2020. 1. 2.(목) ~ 1. 6.(월)
- 6. 강의평가 실시 방법
 - 1) 경희대학교 포털 접속 → 수업/성적 → 수업 → 강의평가 클릭
 - 2) 강의평가 강좌 목록에서 강의평가의 [작성/조회] 클릭
 - 3) 화면 상단의 답변방법 설명에 따라 설문문항을 모두 답변한 후, 강좌에 대한 개방형 질문(자유의견)을 입력하고, 하단의 [저장] 단추 클릭(저장 후 수정 불가)
 - 4) 강좌목록 화면에서 평가를 마친 과목이 [미실시]에서 [실시]로 변경된 것 확인
 - 5) 실시한 과목의 평가내용을 다시 보고 싶을 경우에는 강좌를 클릭하여 조회
 - 6) 목록에 있는 다른 강좌들도 같은 방법으로 모두 강의평가 실시
 - 7) 강의평가 강좌 목록에서 모든 강좌가 [실시]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후 화면 하단의 [로그아웃]을 클릭하여 강의평가 종료
 - 8) 강의평가를 잘못 실시한 경우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의 강의평가담당자에게 문의
※ 강의평가는 공정성을 위하여 익명으로 진행됩니다.

교무처 학사지원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온라인 접수 공고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무시험검정서류를 접수하고 심사한 후 교원자격증을 아래와 같이 발급하고자 하오니 신청바랍니다.

- 1. 대상자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2019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2020.02. 졸업)'
- 2.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11.25.(월) ~ 12.06.(금)
 - 접수방법 : 인포21에서 신청
※ 인포21 로그인 → 수업/성적 클릭 → 교직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클릭 → 무시험검정 신청 내역 확인 후 “신청” 클릭 → “확인” 클릭
- 3. 제출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소정양식) 1부 : 인포 21 신청
 - 보건교사(2급) 무시험검정신청자는 간호사면허증 사본 제출
 - 영양교사(2급) 무시험검정신청자는 영양사면허증 사본 제출
- 4. 유의사항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접수하지 않은 경우 교직과정을 이수하였더라도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음
 - 재학 중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교직팀으로 문의 바람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접수하고, 무시험검정 및 교내 졸업사정에 합격한 학생에 대하여만 교원자격증이 발급됨
- 5. 문의처
 - (서울) 교직팀 02-961-9668, teacher@khu.ac.kr
 - (국제) 교직팀 031-201-3049, teacher02@khu.ac.kr

교무처 교직팀

기업 현직자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직무 이야기!

2019 하반기 미래인재센터 직무/업종탐색 집중교육 '잡(Job)담(談)'

12.2(월) ~ 12.6(금), 매일 16:30 ~ 18:30

- 1) 대 상 : 해당 직무/업종에 대해 탐구하고 싶은 2~4학년 본교 학생 누구나!
- 2) 모집인원 : 일자 별 **선착순 40명!** (교육비 무료, 출석협조전발급가능)
- 3) 신청기간 : 강좌 별 진행일 1일 전까지 (ex. 금융직의 이해: 12.2(월) 23:59까지 신청)
- 4) 신청방법 : 구글폼 신청 (우측하단 QR코드 접속) * 1인당 1강좌만 신청 가능!!
- 5) 구글폼 신청 URL : <https://forms.gle/wz96u1K1m2nEjHpH6>
- 6) 비교 : 5강좌 '전부 수강'은 가능하며, 희망 시 '이메일(job@khu.ac.kr)'로 신청 (출석률 100% 달성 기준, 메일명: 잡담 전과제 신청_이름_학번)
- 7) 문의 : 서울캠퍼스 미래인재센터 (02-961-0167)

회차	일자	강의실	교육내용	현직자 소속
1회	12/2(월)	청운관 620호	영업/영업관리직의 이해	혁신제품제조사
2회	12/3(화)	청운관 620호	금융직의 이해	SC 제일은행
3회	12/4(수)	청운관 620호	외국계 기업의 이해	AP Search (전 : 존슨앤드존슨)
4회	12/5(목)	청운관 509호	마케팅직의 이해	전 : 제일기획
5회	12/6(금)	청운관 620호	공기업의 이해	한국 HR연구소



신청하기 >



 미래혁신원 미래인재센터(서울C) x 경희대학교 LINC+ 사업단 